

“4.25”상방을 돌이켜보며

만명의 파룬궁학원들이 자
원적으로 북경에 가서 “4.25”
상방을 한지 벌써 9 년이 지
났다. 파룬궁학원들의 “4.25”
상방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수
한 중국인의 인권의식 그리고
진리와 신앙을 위하여 감히 일
어나 정당하게 옳바름을 말하
는 정의로운 기개를 돌이켜보
게 한다.

1999 년 4 월 24 일, 수많
은 파룬궁학원들이 중국청소년
과학기술잡지사에 가서 파룬궁
을 공격하고 파룬궁창시인을
모함한 하작휴문장을 시정할것
을 요구했다. 하지만 잡지사
지도일군들은 명확한 답복을
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도리
어 천진시공안국경찰들을 동원
하여 전기몽둥이와 고압물총으
로 파룬궁학원들을 마구 때렸
으며 40 여명을 체포했다. 이것
이 “천진사건”이다. 파룬궁학
원들은 천진시정부에 가서 상
방했으나 그들은 책임을 밀어
버리고 《이 일은 이미 국가공
안부에서 착수했으니 북경에
가시오.》라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파룬궁학원들이 북경으로
상방을 가게 된 직접적 원인이
다. 붙잡힌 천진학원을 석방하
기 위하여 파룬궁학원들에게
있어서 북경에 가서 청원을
하는 길밖에 없었다. 99 년 4 월

25 일, 만여명의 파룬궁 학원들
이 북경국무원 민원사무실에
상방하러 갔다.

그날 8 시 15 분경에 주용
기총리는 파룬궁학원들의 대표
와 회담을 한후 원만히 해결해
주었다. 그리하여 구호도 부르
지 않고 표어도 들지 않으며 교
통규률을 자각적으로 준수해온
파룬궁학원들은 천진시에서 체
포된 파룬궁학원들이 석방된
소식을 듣고서야 마음을 놓고
즉시 떠났다. 중공악당은 사실
을 왜곡하고 “4.25”상방은 중
남해를 포위공격한 정치시위라
고 떠벌였지만 무엇을 공격하
고 무슨 정치시위를 했는가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저
모자만 씌워놓고 법륜공을 진
압하는 구실로 삼았다. “포위공
격”과 “정치목적”이 없이 평화
적방식으로 박해를 제지해달라
고 요구한 “4.25”상방은 헌법
이 부여한 합법적인 권리이며
또한 완전히 정의로운 것이다.

80 여년의 중공독재통치는
중국력사상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사악하고 가장 황당한 한
페이지이다. “4.25”상방의 진상
을 돌이켜보니, 정정당당하게
중공의 박해를 반대해 나선 만
명 파룬궁학원들의 거룩한 모
습이 새삼스레 떠오른다. 평화
롭고도 정의로운 “4.25”상방은
폭정에 대한 반항과 인권에 대
한 존엄을 추구하는 모든 선량
한 중국사람들로 하여금 하루
속히 각성하여 중공사령의 속
박속에서 벗어나 독재의 쇠사
슬을 끊고 아름답고 행복한 미
래를 맞이하자고 고무격려하
고 있다.

토론토민중들이 3,500 만 퇴당을 경축



지난 4 월 12 일 오후 1 시,
전세계퇴당사이트에 중공의 당
단대에서 퇴출한 인수가 3,517
만명을 초과했다고 기록되었다.
4 월 13 일, 토론토사회구역민
중들이 중구당인거리에서 집회
를 열고 3,500 여만명 중국인들
이 중공의 정신통제에서 벗어난
것을 경축했다.



두번 입당선서 한 장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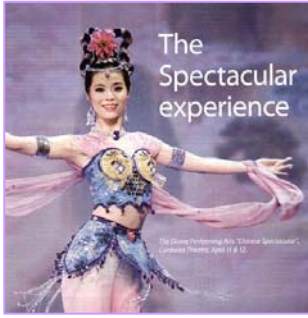
“9 평공산당”이 발표된
이래 많은 사람들이 공산악당의
사교본질을 인식하고 다시는
거짓 공산주의를 믿지 않고 중
공의 당단대조직에서 퇴출했다.
이에 간담이 서늘해진 중공악
당은 멸망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2008 년 새해를 앞두고
중공악당은 장군들을 또 다시
입당선서 하게 했다. 중공이 해
체될때 악당의 순장품이 되지
말고 하루속히 당단대에서 퇴출
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찾으라!



“4.25”상방장면

오스트레일리아매체에서 신문을 소개



신문예술단은 금년 4월 11일에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캔버라에서 첫 공연의 막을 올렸다. “수도잡지”, “성시뉴스” 등 매체에서 충분히 신문을 소개하는 문장을 실었다. 문장에서는 《중국은 예로부터 신주대지라고 불리웠다. 신은 하늘의 문화, 학설, 회화, 음악, 무용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다. 아쉽게도 50년대 이후 특히 문화대혁명때 이러한 신전문화는 공산당에 의해 죄다 파괴되었다. 지금 신당인텔레비존방송국과 신문예술단은 신전문화를 부흥시키기 시작했다. 신문만화는 가무와 고대이야기로 중국고대전통을 다시 재현했다.》라고 말했다.

한 망나니의 큰 변화



나에게 40여세인 한 망나니친척이 있었다. 그는 늘 행패를 부리곤 했는데 찍하면 부모를 욕하고 때렸으며 종일 먹고 마시며 색과 도박을 즐겼다. 그의 안해는 참지 못해 리혼했다. 그는 집을 판돈을 다 써버리고 부모집으로 들어왔다. 어느날 나는 그를 찾아 대법책과 분신자살사건 등 파룬궁진상자료를 주면서 잘 읽어보라고 권유했다. 과연 그는 조용히 읽어보기 시작했다. 그는 분신자살사건 등은 파룬궁을 모욕한 것이고 “쩐싼런”은 생명의 준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때로부터 그는 악습을 고치고 술담배를 끊었으며 부모를 도와 일을 했다.

금년설에 어머니가 빌린 30원을 돌려주려고 100원을 가지고 상점주인을 찾아갔다. 거스름돈을 받아 줬는데 그는 헤아려보지도 않고 호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거스름돈을 헤아려보니 10원이 더 많았다. 그는 즉시 상점주인을 찾아가서 10원을 되돌려주었다. 상점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서 “망니가가 변해 새 사람이 되었군.” 하고 찬탄했다.

“쩐싼런”은 응당 교과서에 써넣어야 합니다.



지난 4월 13일과 14일에 뉴욕 장도파룬궁학원들은 스미스해편상점앞에서 파룬궁을 소개하였고 5조공법을 표현했다. (왼쪽 사진) 한 미국사람이 파룬궁소개를 듣고 나서 《당신들이 따르는 “쩐싼런”을 응당 교과서에 써넣어야 합니다. 당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응당 “쩐싼런”을 따라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벗꽃절에 전시한 아름다운 공법



지난 4월 5일부터 6일까지 일본 아이찌현 풍전시수원공원에서 곱게 핀 은빛 벚꽃이 수많은 유람객들의 주목을 끌었다. 일본중부의 파룬궁학원들이 이번 수원벚꽃절활동에 참가한지 4번째 해가 되었다.

파룬궁학원들은 잔디밭위에 진상전람판을 전시해놓고 련공했으며 무대우에서 공법모형시범을 보여주었다. 어떤 유람객들은 아름답고도 상서로운 련공동작에 끌려 어디에서 공법을 배울수 있는가고 물었으며 어떤 관람객들은 진상전람판을 자세히 보고 나서 파룬따파가 전세계 80여개 나라에 널리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어떤 중국유람객들은 그자리에서 서명하고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박해를 제지하라고 호소했다.



연변 박해 소식

- 지난 4월 11일 오후, 도문시제 1소학교 교원이며 파룬궁학원인 류아선(刘雅仙)은 월궁파출소 악경들에게 랍치되었다
-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경에 백산파출소 소장 장건문은 연길시파룬궁학원 양학화(杨学华)의 집을 수색하고 필기본 컴퓨터와 대법자료들을 빼앗아갔으며 백산호텔에 와서 그를 랍치하여 연길시 국보대대에 보내여 심문하였다.
- 지난 4월 14일 오전에 연길시파룬궁학원 장금파(张金波)는 랍치되어 지금 연길시간수소에서 단식투쟁하고 있다.
- 안도현영경향 파룬궁학원 장홍봉(张鸿凤)과 연길시파룬궁학원 양광(杨光)은 지난 4월 14일 저녁에 화룡시 양광의 세집에서 랍치되고 집수색을 당했다.
- 지난 4월 16일, 도문대법제자 김명순(金明顺)은 북대루부근에서 진상을 알리다가 사북경찰에게 랍치되었다.
- 지난 4월 16일에 연길시파룬궁학원 최옥자는 악경들에게 랍치되고 컴퓨터, 프린트 등을 빼앗겼다. 연길시파룬궁학원 조춘령(赵春玲)은 며칠전에 랍치되었다.